

서른, 잔치는 계속된다

지은희 출신원 앞세워 LPGA KIA 클래식 우승

지난해 대만 대회 우승 이은 '제2의 전성기'

지은희(32)가 결정적인 출신원 한 방을 앞세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IA 클래식(총상금 18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지은희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즈배드의 아비아라 골프클럽(파72·655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기록한 지은희는 공동 2위 크리스티 커, 리제 샬라스(이상 미국)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27만 달러(약 2억9000만원)를 받았다.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 가운데 최고점인 지은희는 지난해 10월 스윙잉 스키츠 타이완 챔피언십 이후 5개월 만에 투어 통산 4승째를 수확했다.

10년 전인 2008년 6월 웨그먼스 LPGA 대회 정상에 오른 지은희는 2009년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을 제패하며 투어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좀처럼 우승권에 다가가지 못하고 상금 랭킹 30~40위권을 맴돌았다.

스윙 교정을 시작한 것이 경기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 나왔고, 나이도 어느덧 30을 넘기면서 이제 은퇴 시기를 정하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만 대회에서 8년 3개월 만에 우승의 기쁨을 누린 지은희가 이번 대회에서 또 승수를 추가하면서 이제 '제2의 전성기'라는 찬사까지 나올 판이다.

3라운드까지 김민경(30), 샬라스와 함께 11언더파 공동 선두였던 지은희는 13번 홀(파4)을 마쳤을 때만 하더라도 커에게 불과 1타 앞서 있었다. 커가 13, 14, 16번 홀에서 계속 한 타씩 줄이며 야금야금 따라붙은 결과였다.

1타 차로 불안한 선두인 상황에서 지은희는 166야드 14번 홀(파3)에 섰다. 7번 아이언으로 날린 티샷은 홀 안으로 향했고, 이 한 방으로 지은희는 3타 차로 달아나며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

이 대회 우승 상금 외에 부상으로 گیا 자동차 제단 스티어링을 받은 지은희는 출신원 부상으로도 گیا자동차 소렌토를 받게 돼 자동차 2대가 한꺼번에 생겼다.

지은희는 방송 인터뷰에서 "오늘 샷감이 좋았고, 퍼트도 잘 들어갔다"며 "다음 주 메이저 대회를 앞두고 자신감을 얻게 돼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경이 13언더파 275타로 공동 4위, 이정은(30)은 12언더파 276타로 공동 7위

최근 LPGA 한국(계) 우승자	
* 우승 날짜 한국 시간 기준	
2017년	
장하나	호주여자오픈 (2.19)
양희영	혼다 LPGA 타임랜드 (2.26)
박인비	HSBC 위민스 챔피언스 (3.5)
이미림	KIA 클래식 (3.27)
노무라 하루	텍사스 숏아웃 (5.1)
김세영	로레나 오초아 매치플레이 (5.8)
유소연 (2승)	ANA 인스퍼레이션 (4.3) 월마트 챔피언십 (6.26)
대니얼 강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7.3)
이미향	레이디스 스퀘어티오픈 (7.31)
김민경 (3승)	슬라이트클래식 (6.5) 마라톤 클래식 (7.24) 브리티시 오픈 (8.7)
박성현 (2승)	US 여자오픈 (7.17) 캐나다 피시픽 여자오픈 (8.28)
이미향	레이디스 스퀘어티오픈 (7.31)
고진영	KCB하나은행 챔피언십 (10.15)
지은희	스윙잉 스키츠 타이완 챔피언십 (10.22)
2018년	
고진영	호주여자오픈 (2.18)
미셸 위	HSBC 월드 챔피언십 (3.4)
박인비	뱅크 오브 오브 파운더스컵 (3.19)
지은희	KIA 클래식 (3.26)

에 각각 올랐다. 이번 시즌 열린 6차례 LPGA 투어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은 고진영(호주오픈), 박인비(파운더스컵), 지은희 등 3승을 따냈다. 또 KIA 클래식에서는 지난해 이미림에 이어 올해도 한국 선수가 정상에 올랐다.

LPGA 투어 다음 대회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에서 열리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ANA 인스퍼레이션이다. /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즈배드의 아비아라 골프클럽에서 진행된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KIA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지은희가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1개월만에 최경주 PGA '톱10' 폰타카나 챔피언십 5위

최경주(48)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2년 1개월 만에 '톱10'을 기록했다.

최경주는 26일 도미니카공화국 코랄레스 골프클럽(파72·7670야드)에서 끝난 PGA 투어 코랄레스 폰타카나 리조트&클럽 챔피언십(총상금 300만 달러)에서 공동 5위를 차지했다.

최경주는 이날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이글 1개와 버디 4개를 잡고 6언더파 66타를 치는 맹타를 휘둘렀다.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를 기록한 최경주는 전날 공동 28위에서 23계단이나 점프하며 2년 1개월 만에 PGA 투어에서 톱 10에 올랐다.

그는 2016년 2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2위, 같은 해 2월 노던 트러스트 오픈에서 공동 5위에 오른 이후 자신의 최고 성적을 냈다. 최경주는 2016년 12월 프랭클린 템플턴 숏아웃에서 공동 9위를 차지했지만, 정규 대회 아닌 이벤트 대회였다. /연합뉴스

무등중, 중학야구 우승 대신육가공대표이사배

무등중이 제5회 대신육가공대표이사배 중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무등중은 최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최종전에서 진흥중을 9-6로 꺾고 우승팀이 됐다.

지난해 우승팀 총장중을 포함해 4개 야구팀이 리그전으로 승부를 가린 이번 대회에서 무등중은 첫 경기에서 동성중을 5-3으로 이겼다. 둘째 날 진흥중에 5-10으로 패한 무등중은 세 번째 상대였던 총장중을 6-4로 이기면 2승 1패를 기록했다.

그리고 동물을 이룬 진흥중과 최종전을 펼친 결과 9-6 승리를 거두며 1위를 확정했다.

무등중은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 대회를 겸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이루며, 오는 5월 충북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 대표로 참가하게 됐다.

한편 초등부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인 제5회 수안센터빌병원장배 초등학교 야구대회는 26일 분당리틀경기장에서 개막해 30일까지 계속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미완의 4~5선발 '물음표' 지을까

T 타이거즈 전망대

'마운드의 물음표를 지워라!' KIA 타이거즈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마운드 점검을 받는다.

개막시리즈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KIA는 27일부터 안방에서 삼성을 상대로 주중 3연전을 치른다. 주말에는 잠실로 올라가 LG 트윈스와 원정 3연전에 나선다.

주중 3연전은 '우승 후보' KIA의 초반 성적을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이다.

KIA의 원투펀치 헛타와 양현종이 지난 주말 kt와의 개막시리즈에 나서 시즌 첫 경기를 치렀다. 삼성과의 3연전은 선발 남은 세 지리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KIA의 2018시즌은 '타고투저'다.

앞선 개막 2연전을 통해서 KIA는 변함없는 화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A는 개막전에서 타선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4-5 역전패는 당했지만 12개의 안타를 쏟아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멀티홈런의 이병호를 앞세워 4개의 홈런 포함 정당 16안타로 14점을 뽑아내며 '여게인

안방서 삼성과 3연전... 오늘 팻딘 출격

이민우·정용운·박정수 등 선발자원 점검

2017'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마운드에는 아직 물음표가 남아있다. 일단 불펜의 출발은 좋았다. 개막전에서 헛타가 갑작스러운 난조로 5.1이닝 4실점으로 주춤했지만 임기훈-임창용-김윤동-김세현이 이후 4이닝을 1실점으로 막았다. 김윤동이 로하스에게 결승 홈런을 내줬지만 전체적인 피칭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25일 경기에서도 선발 양현종이 7이닝 1실점으로 물러난 뒤 문경찬과 유승철이 8.9회를 실점 없이 처리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불펜의 첫 단추는 잘 채워졌다. 두 경기에서 불펜의 평균자책점은 1.59.

하지만 선발진이 미완성이다. 27일 경기에 출격하는 팻딘을 제외하고 남은 두 경기는 '선발 후보'들로 꾸러가야 한다.

KIA는 연습경기과 시범경기 등을 통해서 이민우, 박정수, 정용운, 임기훈, 문경찬 등 선발자원을 점검했다.

이민우와 정용운이 먼저 선발로 어필 무대를 가질 전망이다. 이민우는 데뷔 시즌

이었던 지난해 선발로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며 선발 후보 중 가장 먼저 기회를 약속받았다. 정용운은 지난해 삼성과의 경기에서 생애 첫 선발승을 기록했고, 시범경기에서도 삼성에 강한 면모를 보였던 만큼 선발로 새 시즌을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4-5선발의 성격에 따라 전체적인 마운드 구성도 달라지는 만큼 주중 삼성전은 KIA의 3-4월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팻딘의 첫 등판 성적도 관심사다.

팻딘은 지난 16일 넥센과의 시범경기에서 나와 4이닝 8K의 위력적인 피칭을 하며 판이 예정됐던 롯데전이 우천으로 취소됐다. 캠프에서도 공에 맞아 경기 도중 교체되는 등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다

는 게 변수다. 방향이 예열을 끝낸 KIA가 마운드 물음표를 지우고 초반 레이스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준혁 넘은 정성훈

2136경기 출전 '리그 최다'...kt 고졸 강백호 데뷔 홈런

캠스필드 역사에 남을 기록

2018시즌 개막과 함께 챔피언스필드 가 역사의 무대가 됐다.

지난 24일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가 챔피언스필드에서 2018시즌 대장정을 시작했다. 새 시즌을 연 이날, 양 팀은 프로야구 역사에 남을 기록을 남겼다.

먼저 kt의 고졸 신인 강백호가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이날 8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한 강백호는 2회 선두타자로 처음 프로 타석에 섰다. 그리고 풀카운트에서 헛타의 146km짜리 직구를 받아 왼쪽 담장을 넘기며 데뷔 타석에서 홈런을 기록했다.

고졸 신인 선수가 개막전, 데뷔 타석에서 홈런을 터트린 것은 역대 처음이다.

'적장' 김기태 감독도 감탄하게 한 홈런이었다. 김기태 감독은 "축하해주고 싶다. 굉장했다. 신인 타자가 개막전 데뷔 타석에서 홈런을 친다는 것은 큰 영광이지 않겠나"고 축하의 말을 했다.

역사를 쓴 강백호는 "타이밍이 늦어서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기분이 좋다. 전날 (헛타) 영상을 많이 봤다. 상대가 헛타라서 더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7회 또 다른 대기록이 만들어졌다. 프로 20년 차 정성훈이 김민식의 대타로 등장하면서 양준혁이 가지고 있던 타자 통산 최다 경기 출장 신기록을 2136경기로 바꿨다.

김기태 감독은 "정말 대기록이다"며 "쭉쭉 많이 기록 이어지면 좋겠다"고 박수를 보냈다.

정성훈은 "기술적인 기록이 아니라서 큰 의미를 두기가 그렇다. 하다 보니 이뤄진 것이다"라면서도 "나처럼 화려하지 않은 선수가 이를 수 있는 기록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또 "여유 있는 상황에서 나간 게 아니라 팀이 지고 있어서 감동할 틈이 없었다. 결과를 내고 싶어서 경기에 집중했다"고 기록 순간을 말했다.

고향팬들의 환대 속에 타이거즈 복귀 전이자 최다 출장 경기를 치른 정성훈은 "내가 타이거즈 선수로 뛰었을 때 딱히 남긴 게 없는 것 같은데 고향팬들이 많이 반겨주신다. 팀을 떠나면서 울었다. 그때는 트레이드가 뭔지 모르는 나이였다. 환호해주셔서 감사하다. 행운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

KIA, SNS 응원 이벤트

KIA 타이거즈가 2018시즌 개막을 맞아 홈페이지와 SNS 이벤트를 연다.

홈페이지에서는 선수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기 이벤트가 진행된다.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 팝업창을 통해 올 시즌 가장 기대되는 선수 이름과 함께 응원 메시지(글·사진·영상)를 첨부하면 된다.

SNS 이벤트는 관망 사진 인증 방식이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펼쳐지는 홈 개막 시리즈(24~29일) 경기 관련 인증사진을 찍은 뒤 #KIA타이거즈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계정에 올리면 된다.

KIA는 독창적인 사진과 전달 기법을 사용한 팬을 선정해 JBL 스피커(15명)와 챔피언스필드 맨투맨 티셔츠(20명), 챔피언스 후드티(10명)를 증정한다. 또 KIA는 팬들의 인증 사진을 모아 오는 4월 발행되는 웹진 '호랑이는 내 친구'에 게재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이벤트는 4월 8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4월 13일 구단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SNS 이벤트 응모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4월 4일 SNS를 통해 당첨자를 발표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